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시립오페라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상으로 들어온 예술...“완성도 높은 무대” 선사

광주예당 신년 프로·상반기 공연 일정 공개

‘찾아가는 예술단’ 3년여만에 재개·문화예술교실 증설
시향 창단 50주년 ‘G50’...창극단 ‘희경루방회도’ 주목
시립발레단 ‘해적’·관악관현악단 ‘빛의 도시’ 등도 기대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새롭게 정비한다.

예술의전당은 시립예술단체의 신년 프로그램 및 상반기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찾아가는 예술단’의 운영 재개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2023년 하반기를 끝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예술단을 다시 운영한다. 그동안 공연이나 광장 등 볼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달리,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는 곳

을 예술단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중 공모를 실시. 통해 희망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문화예술교실’은 기존보다 발레교실 1개 반이 증설, 국악교실과 발레교실, 여성합창교실, 동요교실 등 총 15개 반이 개설된다.

상반기에는 8개 시립예술단체가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창단 50주년을 맞은 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병욱)은 이달 신년음악회 ‘만남’으로 새해 문을 연다. 2월 ‘Nr.2’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브람스를, 3월 ‘보헤미아의 봄’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종혜와 차이콥스키·드보르자의 명곡을 선사하고, 4월 ‘레닌그라드’에서는 쇼스타

코비치의 대작을 연주하며, ‘2026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도 참여해 광주의 예술적 역량을 전국에 알린다. 5월 ‘G50’은 창단 5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말려 교향곡 제2번 ‘부활’을 대규모 편성으로 무대를 구성하고, 악기의 매력을 조형하는 ‘오티움 콘서트’(2월 바순·6월 비올라)와 ‘체임버 시리즈’, ‘키즈콘서트’ 등이 관객을 기다린다.

이어 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용호)은 첫 공연으로 3월 14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광주 남구)에서 지난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마당창극 ‘열어볼결심’을 정보문화산업 공모 선정작 ‘무대, 경계를 풀다: Unbound Stage’로 선보인다. 특별기획 공연 빛고를 명품 국악공연 ‘천변만화’는 가·무·악을 한번에 접할 수 있는 공연으로 3~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6월 26일 상반기 마지막 공연인 특별기획공연 창무극 ‘희경루방회도’를 통해 전통예술이 지닌 교유와 향유의 정신을 무대화한다.

시립발레단은 3월과 4월 ‘발레 살롱 콘서트’ 시리즈인 ‘Voice of Spring’과 ‘해설이 있는 발레’로 시민들을 찾는다. 5월에는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해적’을 대한민국 발레축제 초청 무대로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무대에 올린다. 뿐만 아니라 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박승희)은 3월 19일

단원들의 창작 기량을 접할 수 있는 제145회 ‘신춘음악회’를 통해 문경미 단원의 위촉 초연곡 ‘고래’와 김상옥 악장의 피리협주곡 ‘공동명의’를 오영미 부악장의 피리 협주로 대극장에서 선사한다. 4월 10일에는 소극장에서 김종욱 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를 객원 지휘로 초청해 제146회 정기연주회 ‘Luminous City-빛의 도시’를 개최하고, 5월 15일 제147회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에서는 대피리, 해금, 생황 등 국악기의 깊은 매력을 전하며, 6월 13일에는 국악 지휘자 육성 프로젝트인 ‘젊은 마에스트로의 초대’를 통해 젊은 지휘자들의 무대를 소개한다. 7월에는 지난 2024년 호평받았던 ‘아창제 with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과의 교류 공연으로 준비한다.

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창은)은 3월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203회 정기연주회 ‘Friendly Concert’를 열고 부산시립합창단과 영·호남 교류 무대로 객석을 채운다. 기획연주회로는 4월 15~8일 지난해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한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 ‘창구아~ 노을~자’를 소극장에서 올리고, 4월 29일 대극장 로비에서 마티네 콘서트 ‘아울림’으로 공연장을 벗어난 공간에서 합창의 울림을 전해 관객과의 거리를 한층 좁힌다.

시립합창단은 대구와 부산, 제주,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초청 무대에도 오르며, 각 지역 시립합창단과의 교류 공연은 물론, 제주 국제합창제와 경남 국제합창제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오준혁)은 4월 4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2026년 첫 무대인 제147회 정기공연 뮤지컬 ‘미라클’(Miracle)로 시민들을 기다리고, 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26회 정기공연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우수 창작극 시리즈 ‘소녀들’을 들고 온다.

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은 ‘2026 달빛동맹 교류공연’으로 새해를 열고, 광주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호평받았던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여 그 열기를 이어간다. 3월 14일에는 기획공연 ‘오페라 갈라 콘서트-60 Stars’를 통해 광주를 대표하는 성악가 60여 명의 목소리로 가곡과 오페라 합창곡 등 명곡들을 들려준다.

윤영문 전당장은 “지나해 전당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에 보답하고자 올해 프로그램을 더욱 공들여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성도 높은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문학 관점서 분석...기후 위기 속 농사 전망

‘문학들’ 겨울호 광주In문학서 조망...농사에 미치는 영향들 문학적 접근

기후문제는 인류에게 당장 눈 앞에 닥친 위기 경고등이다.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이 시기후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운치있던 비는 폭우로 매우 사나워졌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이다. 과수 재배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농사는 사람 못지 않게 타격을 직접 받고 있는 분야다. 이제 추위는 적당히 춥지 않다. 추우면 지나치게 춥고, 겨울 기온 치고는 유난히 높을 때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온 기후 재난, 이런 현상을 문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광주를 연고로 발행되는 계간 문예지 겨울호에 기후재난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하는 비평이 실려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사회 현상 가운데 기후 재난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문학적 담론으로 다루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계간종합문예지 ‘문학들’(발행인 송광룡) 겨울호(통권 82호)는 이런 흐름을 탈피해 ‘광주In문학’이라는 꼭지에서 기후재난을 조망하는 비평을 실고 있다. ‘전남과 경북 농촌의 기후 재난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두 비평가가 발제에 나서고 있다. 유기쁨 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농부의 감각:남도의 삶과 기후 재난’, 정숙정 외래교수(경북대 사회학과)의 ‘기후위

기시대, 감귤면의 풍경과 농민의 전환’이 그것.

먼저 유기쁨 연구원의 ‘농부의 감각:남도의 삶과 기후 재난’은 지금 우리가 회복할 것으로 기술이 아닌 농부의 감각이라는 점을 설파한다. 유 연구원은 대대로 전수돼온 농부의 시간 감각에 대해 좀 더 세련돼 표현되지만 농촌에서 실제로 감각하는 시간은 입춘이니, 망종이니, 하종이니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며, 육체적이고 몸에 스며든 감각이라면서 때마다 노동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지고, 대지에 깃들여 사는 농부들은 수많은 시간의 얽힘에 온몸으로 참여한다는 시각이다. 또 유 연구원은 올해 남도의 기상 상황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른 봄에 이상하리만치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등의 급격한 기온 변동은 그보다 치더러 5월의 늦은 추위와 6월의 이른 무더위, 7월과 8월의 극심한 폭염과 국지성 호우, 9월과 10월의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는 오랜 세월을 걸쳐 내려온 계절과 절기의 구분을 무색하게 했으며, 특히 일기예보가 무의미할 정도로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원은 지난해 농작업 중 숨진 농민 수는 산업 재해의 세배에 달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유 연구원은 “농사는 단순한 식량 생산을 위한 공정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농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누구와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더 붙여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숙정 외래교수는 토착적 삶의 양식으로서의 농업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북병으로 ‘가을장마’를 쫓았다. 10월의 최고 기온이 28℃ 이상으로 올라갔다면서 끊임 없이 내린 비와 따뜻한 기온 탓에 벼가 제대로 익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확을 앞둔 농가의 불안과 부담도 커졌다. 9월 하순부터 콧바인으로 하던 수확이 11월이 되도록 벼를 베지 못한 농가도 있었다고 속회한다.

정 외래교수는 “고령농의 느린 리듬, 여성농의 세심한 손기술, 세대가 축적한 계절의 감각, 이주 노동자의 숙련과 기여를 중심에 놓고 그 이해와 지식이 공유지와 공유 시설로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지역은 기후 위기 앞에서 더 굳건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연주회 열려

창작 국악관현악 5편...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아르코)와 한국창작음악제추진단(단장 이건용)이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창작음악제 ‘ARKO한국창작음악제(아창제)’ 국악부문 연주회가 오는 27일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지휘 이승환)이 참여해 총 5편의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을 선보인다.

연주곡은 동양화 기법인 파묵법의 원리를 음향 개념으로 확장해 스며들고 겹치는 질감을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한 강한희의 ‘파묵’을 비롯해 경기 민요의 이별가와 진도씻김굿의 선율 및 장단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품은 소중한 기억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김지호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기억의 노래’, 부여의 고대 수렵 제의인 영고제를 모티브로 당시의 문화적 풍경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서민재의 ‘영고제’, 숫자 8에 담긴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 요소를 결합한 유재영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8개의 소품’, 대금을 중심으로 생명의 탄생과 성장, 시간의 순환을 음악적 서사로 풀어낸 이교운의 대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숨, 생, 시’(협연 김정승)이다.

이번 공연의 지휘를 맡은 이승환은 국악관현악의 가능성을 확장해 온 지휘자로, 전통과 동시대성을 아우르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함께 국악관현악의 깊이와 다채로움을 선보인다.

올해에는 공연에 앞서 작곡가가 직접 작품을 소개하는 ‘제17회 아창제 선정작 및 작곡가 프리뷰’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됐다.



관객은 공연 당일, 작곡가의 설명을 통해 작품의 탄생 배경과 음악적 아이디어를 미리 접할 수 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27일 오후 6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캠퍼스 음악원 318호 강의실로 가면 된다.

정병국 위원장은 “ARKO한국창작음악제는 지난 17년간 한국 창작관현악의 중요한 발표 무대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동시대 작곡가들의 새로운 시도와 음악적 언어가 관객과 만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용 아창제 추진단장은 “K-컬처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창제를 통해 대한민국 창작관현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7회 아창제 국악부문의 관람료는 전석 2만 원이며, 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연 및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창제 추진단 사무국(02-365-7655/ music@ark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